

작년 3분기 임금일자리 21만개 증가

건설,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기 악화로 지난해 3분기 임금일자리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일자리는 3분기째 감소하고 있으며 통상 불확실성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자동차 분야 일자리도 변동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1만4000개로 1년 전보다 21만3000개 늘었다. 증가 폭은 같은해 1분기(31만5000개), 2분기(21만3000개)에 비해 둔화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11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같은해 1분기에도 3만5000개, 2분기엔 8만4000개의 일자리가 소멸했는데, 감소 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분류로 나뉜 보면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8만9000개가 줄었고 종합 건설업에서도 2만4000개가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1만9000개가 사라졌다. 제조업 역시 지난해 2분기(-1만6000개)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중분류로 나뉜 보면 기계장비(-6만개), 금속가공(-5만1800개), 전자통신(-5만2000개), 자동차(-4만2000개)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소멸했다. 소분류까지 나뉜 보면 자동차 부품(-28만9000개), 플라스틱 제품(-20만5000개), 자동차용 엔진·자동차(-13만6000개), 구조용 금속제품(-12만3000개) 등에서도 감소 폭이 비교적 컸다.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부품 부품과 특수 목적용 기계 등은 일자리의 대체와 생성, 소멸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부품은 전체 지속 일자리 중 차지하는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건설·車 부진에 증가폭 둔화

비중이 7.1%로 가장 높았는데 소멸 일자리 중에서도 7.2%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체 일자리(6.7%)와 신규 일자리(5.6%)에서도 그 비중이 각각 2.4위로 상위권이었다. 특수 목적용 기계 역시 대체 일자리(7.1%)와 신규 일자리(7.5%)에서 비중이 1위였고 지속 일자리(6.2%·2위), 소멸 일자리(6.5%·3위) 상위권에 들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근로자가 들고 나는 분화가 심한 편"이라며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한국GM 군산 공장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많아 다른 업종들보다 변동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폐업이나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4%,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였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일자리는 늘었지만, 전체 소멸된 일자리 중에선 11.4%의 비중을 나타냈다. 소멸 일자리 중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지난해 3분기 8만6000개 늘었다. 같은해 1분기에는 9만1500개, 2분기에는 8만5000개가 증가했다. 음식료품·담배 도매(1만3000개), 온라인 쇼핑, 자동판매기 등 무점포 소매(1만3000개), 생활용품 도매(1만1000개) 등 부문에서 증가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박 과장은 "고용보험에 드는 것

을 전제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이전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일자리가 통계로 잡힌 것"이라며 "제도 변화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생업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8만4000개 늘어 도·소매업 다음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4만8000개, 보건업에서 3만6000개가 늘었다.

건설업 부진으로 남자 일자리는 5000개 줄었다. 반면 여자 일자리는

21만8000개 늘어났다.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늘었다. 박 과장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8만4000개 늘었는데 이 중 7만6000개가 여성 일자리"라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2만7000개)와 40대(-2만6000개)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50대(12만2000개)와 60대 이상(11만4000개), 20대 이하(3만개)에선 늘었다.

기업종류별로 보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2만6000명)를 제외한 회사법인(8만7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5만9000개), 정부·비법인단체(9만2000개)에서 모두 늘었다. 특히 정부·비법인단체에서의 일자리는 같은해 1분기(6만1000개)와 2분기(8만3000개)에 비해 증가 폭이 커졌다.



전남도 '남도한바퀴' 30일 시동

체류형 1박2일 코스 등 신설...평일 3회 주말 9회 운영

전남도의 대표적 남도여행 관광상품인 2019년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한바퀴는 23일부터 인터넷 예약, 25일부터 현장 예약을 시작한다.

올해는 체류형 1박 2일 코스 2개소, 전통 5일 시장 연계 코스 5개소, 신안 천사대교, 목포 케이볼카 개통에 따른 섬 및 해양 연계 코스 전북·경남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광역 코스 5개소 등이 신설됐다.

지역별 핵심 쟁점 사업 시행 일정을 고려해 상품 코스를 수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8개 코스에서 평일 3회, 주말 9회, 총 1030회를 운행할 예정이

다. '남도한바퀴' 기본 요금은 1일 코스 9900원이다. 섬 여행과 1박 2일 여행코스 등은 코스별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 차등 판매한다.

세부 코스별 이용 금액, 탑승 정보 및 예약 문의 등은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금호고속 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오는 7~8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공동으로 권역별 반일 코스 1일 코스, 1박2일 코스 등을 별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전, 국내 첫 '전기차 원격 충전서비스 플랫폼' 개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국내 최초로 국제 충전기 통신 규격을 적용한 '전기차 원격 충전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21일 한전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충전 부가서비스를 스마트폰 앱(APP)처럼 손쉽게 개발·설치·삭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북미·유럽 등 글로벌 표준 충전기 통신 규격을 적용 개발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력연구원은 별도의 충전인프라 운영과 자체 개발한 전기차 고객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의 기술적인 신뢰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는 전기차용 급속·완속 충전기 1만3000기 이상이 구축된 가운데 충전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기존 충전시설 통합 운영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기능에 머물러 부하 예측 관리, 충전기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플랫폼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충전기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했다.

또 충전인프라 운영자가 전기차 데이터 분석, 충전기 자산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농업인NH안전보험, 온라인용 상품 출시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자사 온라인보험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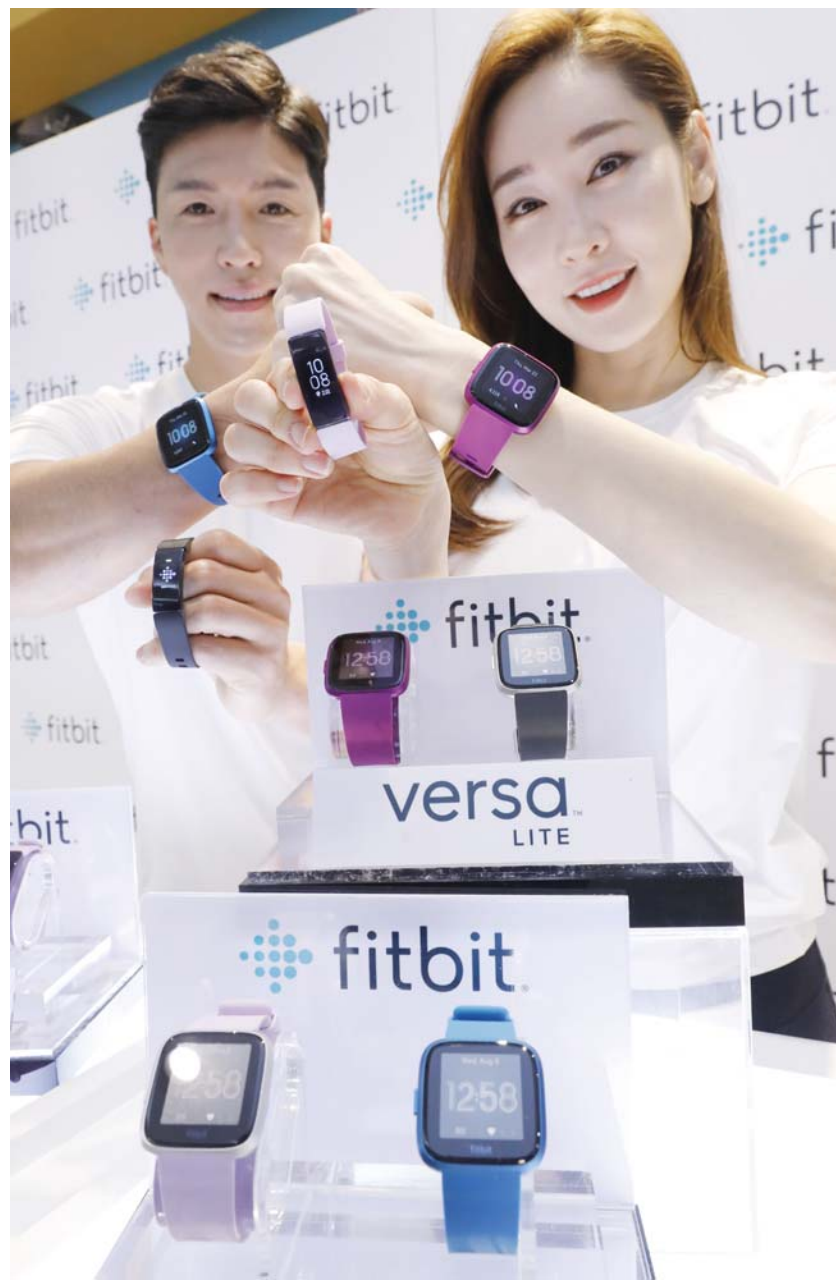
"농업인NH안전보험"은 NH농협 생명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전국 농축협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치료비는 물론 유족급여, 장례비, 장애

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산재형은 84세까지)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 1회 납부하는 보험료는 성별과 연령 관계없이 동일하다. 온라인 채널에서 가입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산재형 2형과 일반형 1형 중 선택 가능하다.

상품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핏비트 3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 글로벌 웨어러블 브랜드 핏비트가 2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일렉트마트 팝업스토어에서 3가지의 신제품 '버사 라이트 에디션', '인스피어 HR', '인스피어'를 선보이고 있다. 핏비트는 21일부터 27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팝업스토어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제품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